

# 학습의 의미와 실천

박주병  
(강원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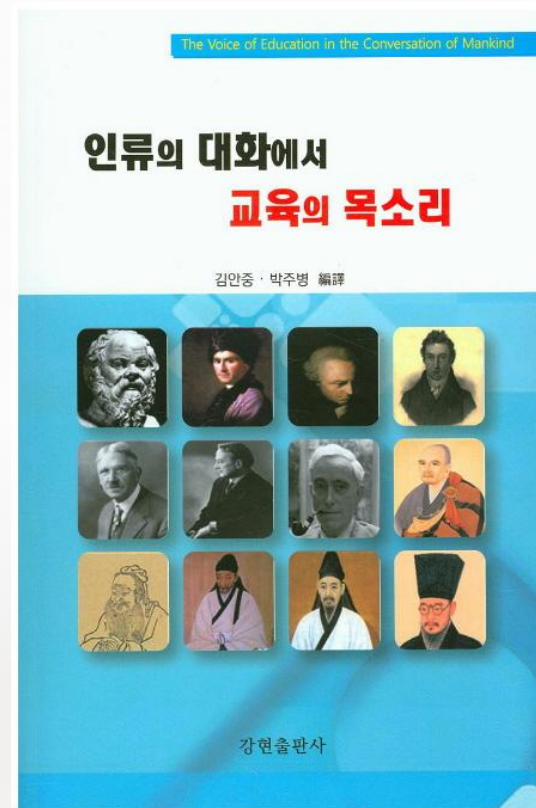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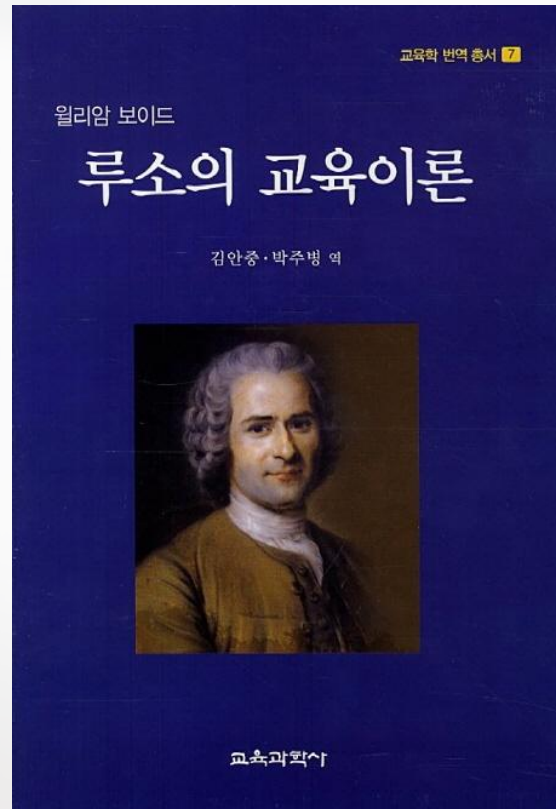
# 목차 contents

- I. 양해의 말씀
- II. 지피지기
- III. 몇 가지 사족
- IV. 질문

# 양해의 말씀...



# 제가 공부한 이력...




## 연장을 들고 고민하는 낚시꾼....



자신의 이론적 장비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연구하  
는 이론가는,  
아무 고기도 잡지 못한다.

- In M. Oakeshott, *On Human Conduct*

A photograph of a stack of traditional Korean books, likely from the Joseon era, with a green text overlay on the left side. The books are arranged in a row, and the text on the cover of the book on the right is visible. The text overlay is in white Korean characters on a green background.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知彼知己,  
百戰不殆)

- <손자병법>, 謨攻 편

A young child with light-colored hair and round glasses is shown in profile, reading a book. The child is wearing a white shirt. The background is dark and out of focus. A semi-transparent white box with Korean text is overlaid on the left side of the image.

**우리가 상대해야 할 적은?**

**공부?**

**시험공부?**

**공부=시험공부?**

## 만약 이 세상에서 시험을 없앤다면?^^

“시험은 자유를 속박하는 족쇄, 희망을 목조르는 사슬.  
시험이라는 단어만 떠올리면 덜커덩, 언제나 집채만한 돌덩어리가 그대 가슴을 짓누른다.

그대는 시험이 끝날 때까지 날마다 커다란 가마솥에 불안의 여물죽을 끓인다. 불안의 여물죽만이 그대의 일용할 양식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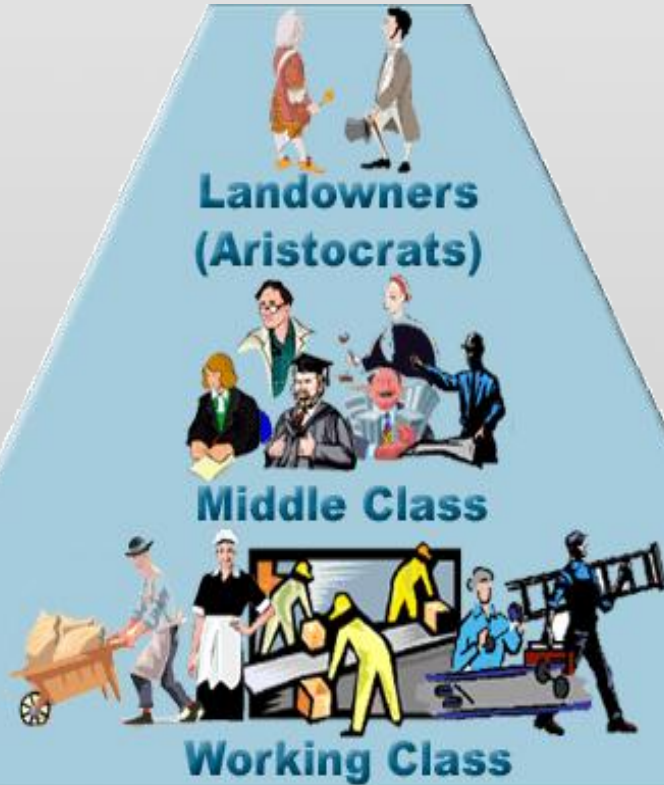
밤마다 절망이 검은 복면을 쓰고 잠입해서 그대의 가슴에 무지막한 대못을 박는다. 단지 안정된 직장이나 얻어 가까스로 입에 풀칠이나 하면서 살아가겠다는 희망은 얼마나 소박한 희망이냐.

- 이외수, 타조날다 중에서...



1) 우리 학교가 시험을  
중시하게 된  
까닭...

# Aristocracy(신분제, 혈통주의)



# Mertocracy(능력주의, 업적주의의)

이제 모든 사람은 공직에 진출함에 있어  
**재능과 덕성** 이외에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는다.



- <인간과 시민에 관한 권리선언> 제4조



# 합리적 차등주의



2)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부터 시험을...?

# 조선시대 과거 응시자수

“문과 1소(所)는 예조(禮曹)에다 설치했는데, 중추부(中樞府)를 거쳐 북으로는 광화문(光化門) 밖까지, 남으로는 경조부(京兆府) 앞까지 닿았다.

베 포장을 쳐 성을 만들었고 참가자는 3만 2천 5백 98명이었으며, 받아들인 시권(試券)은 1만 3천 7백 37장이었다…

**그리하여 3개 소의 참가자가 도합 11만 1천 8백 38명이었고, 받아들인 시험지는 3만 8천 6백 14장이었다.**

- 조선 정조 24년 정시



# 농민에 대한 과거 응시 배려

“상고할 일은 재가내리신 총홍감사 서장에 교생의 명분은 비록 선비이나 직접 농사짓고 장사를 하고 있으니, 구황이 있을 때에 실은 편히 앉아 강습하기 어렵습니다. ... 이들이 직접 농상을 하므로 이처럼 기근이 든 해를 맞이하여 죽음을 구호하는 데에 겨를이 없으니 편히 앉아 강습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한 바의 그 말은 사실 그러하니..

(비변사담록, 제 37책, 효종9년 9월 1일자)

영의정 윤은보와 좌의정 홍언필이 아뢰기를 “지난해 기근은 30년 전까진 없었던 일입니다. 금년 농사도 절반은 흉년이 들었으니 ... 과거 날짜를 점점 물리면 농사지을 때를 범하게 될 것인데, 지방의 가난한 유생들이 양식을 메고 분주하여 이 때문에 농사지을 때를 잃어 아사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중족실록, 권 99, 37년 12월)

# 중인계층의 존재?

“조선시대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 866명을 배출한 전주이씨는 중인에 해당하는 의관, 역관, 음양관, 율관 등 잡과급제자도 364명을 배출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밀양박씨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260명을 배출했으나 동시에 잡과급제자 165명을 배출했다. 경주김씨는 문과급제자 209명과 잡과급제자 158명을, 청주한씨는 문과급제자 273명과 잡과급제자 191명을 배출했다.

반면, 중인가문으로 널리 알려진 태안이씨, 밀양변씨, 우봉김씨, 천녕현씨, 삼척김씨 등, 수십개의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나오지 않은 중인성관은 천녕현씨 정도이다.

-한영우(2013). 과거, 출세의 사다리, 1권, 10-11.

# 중인계층의 존재?

“조선시대 가장 많은 문과급제자 866명을 배출한 전주이씨는 중인에 해당하는 의관, 역관, 음양관, 율관 등 잡과급제자도 364명을 배출하여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밀양박씨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260명을 배출했으나 동시에 잡과급제자 165명을 배출했다. 경주김씨는 문과급제자 209명과 잡과급제자 158명을, 청주한씨는 문과급제자 273명과 잡과급제자 191명을 배출했다.

반면, 중인가문으로 널리 알려진 태안이씨, 밀양변씨, 우봉김씨, 천녕현씨, 삼척김씨 등, 수십개의 성관에서 문과급제자가 나오지 않은 중인성관은 천녕현씨 정도이다.

-한영우(2013). 과거, 출세의 사다리, 1권, 10-11.



# 천민에게까지 적용된 능력주의

**이선:** 벼슬이 판서와 예문관 대제학(정2품)에 올랐다. 태조 이성계의 서녀가 낳은 아들로 문과 응시가 불가하다는 신하의 상소가 있었으나 세종은 이선에게 능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응시를 허락하였고, 고관에 올랐다.

**황유중:** 중종 9년(1514) 급제하여 벼슬이 성균관 전직과 예조좌랑(정6품)에 올랐다. <실록>에 조상이 상판을 하여 극히 미천하다고 대간이 서경을 거부하였으나, 임금이 이를 따르지 않고 벼슬을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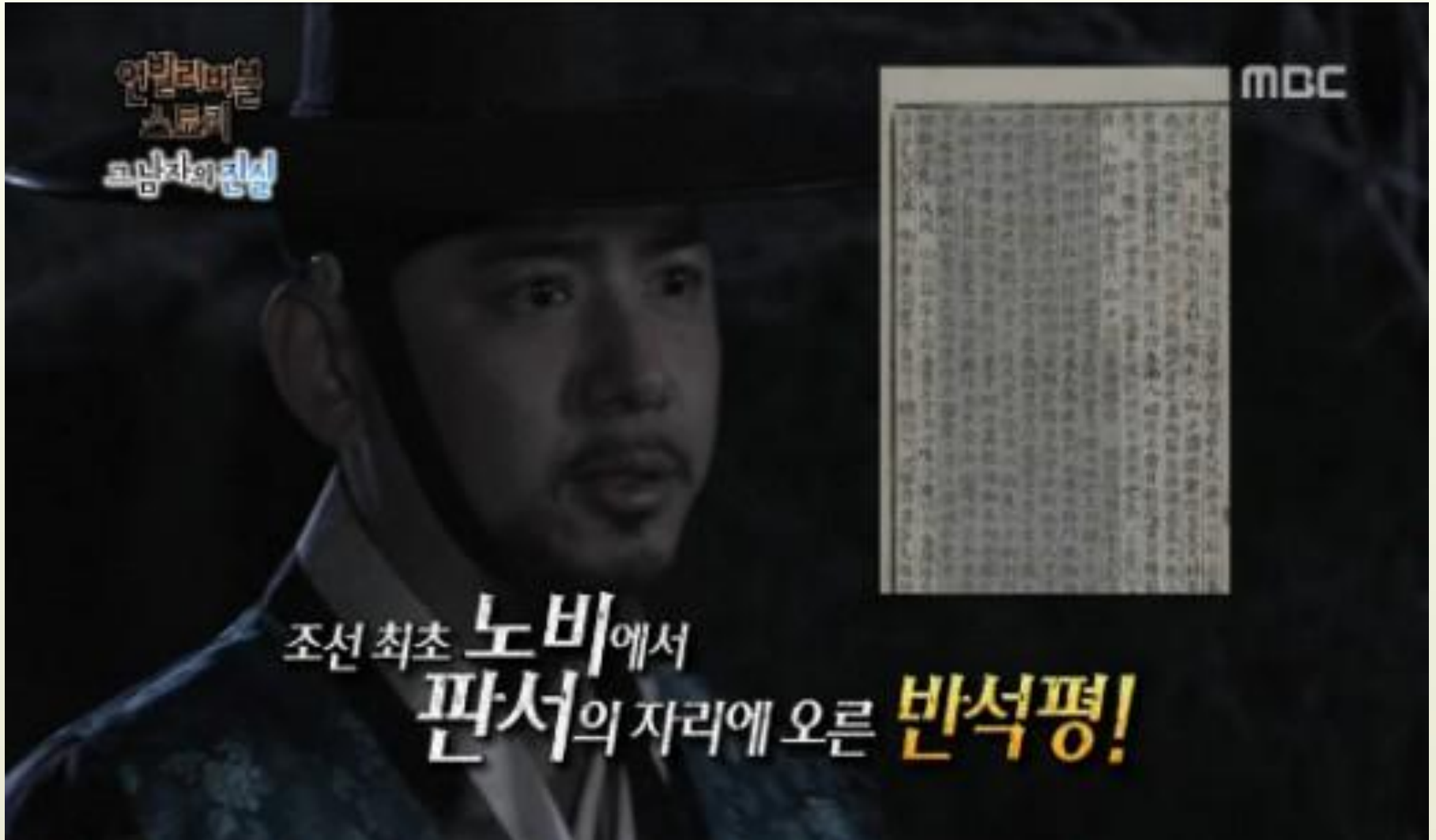
**반석평(?-1540):** 벼슬이 형조판서(정2품)에 올랐다. 미관이었을 때, 대간은 그가 천얼출신이자 노비였다는 점을 들어 서경을 해주지 않고, 탄핵한 적도 있으나, 겸손한 성품과 능력으로 신망이 두터웠다.

**장진문(1639-?):** 숙종대 현직 역리로서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군수(종4품)에 이르렀다. 본관이 울진으로 되어 있는데, 울진 장씨족보에조차 올라있지 않다.

**이정일(1777~):** 황해도 진천 사람으로, 정조때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은 봉상시 봉사에 그쳤다. 본관은 화산 사람으로, 화산이씨는 고려 때 베트남에서 귀화해 온 왕족의 후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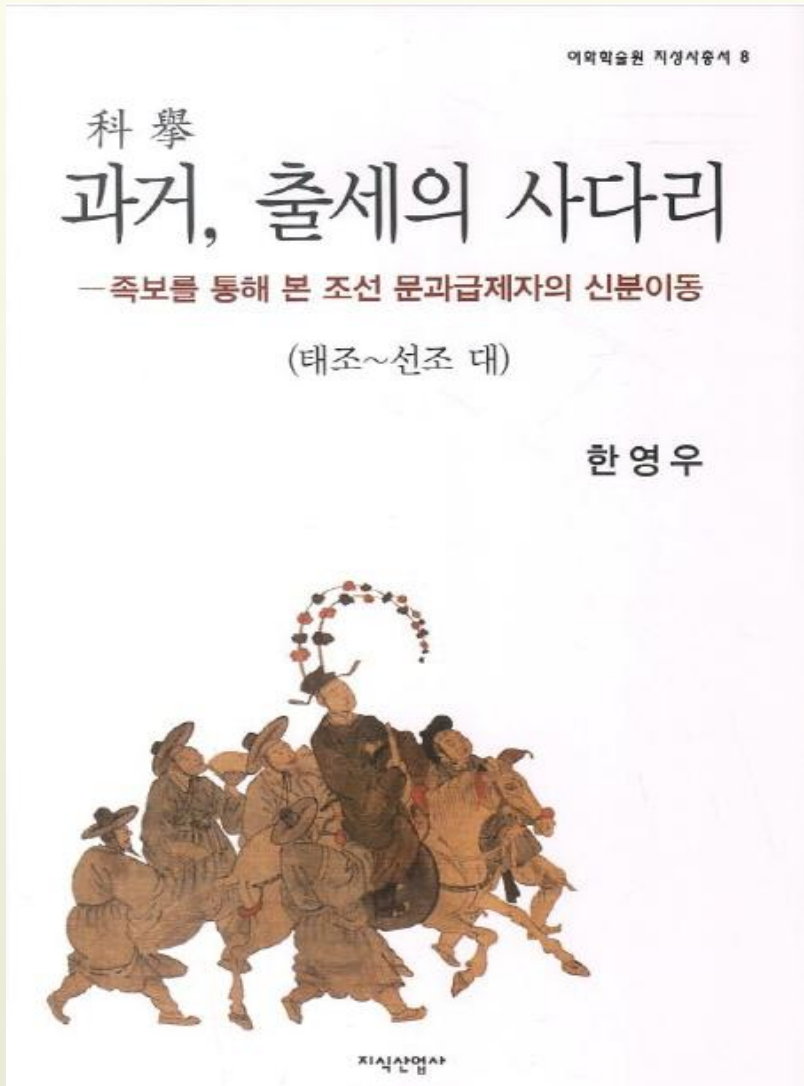


# 천민에게까지 적용된 능력주의



# 조선시대 과거제의 원칙: 능력주의

(적어도 관료선발에 한해서는...)



조선시대 문과급제자 중 '신분 낮은' 사람 비율 (단위: %)





우리가  
그토록 시험에  
한이 맺히는 까닭



3) 우리는  
어떤 형태의  
시험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 다산 정약용의 한탄

과거를 위한 공부는 사람 마음 깊은 곳을 파괴한다.

그러나 사람을 뽑아쓰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과거를 연습하는 것[이습]을 부득이 권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를 과예라고 한다.

어린아이 중에 총명하고 기억력이 좋은 사람을 별도로 뽑아서 가르치고 권면해야 한다.

과예를 부지런히 장려하여 과거에 합격하는 자가 계속해서 나오면 고을의 문화가 밝아지니,  
이것도 목민관의 영예가 될 것이다.

- <목민심서>, 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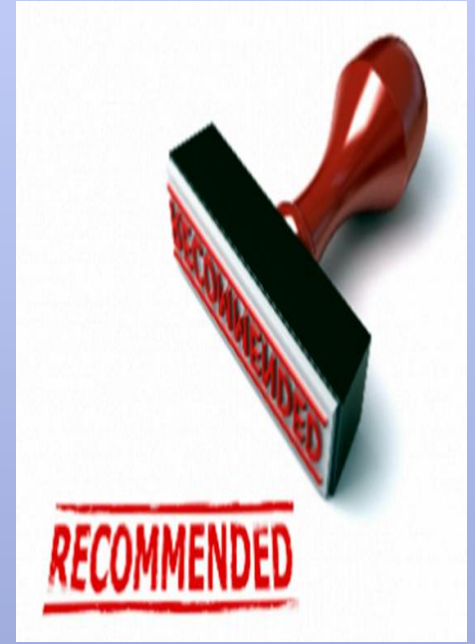
# 사람뽑아 쓰는 법의 다양성



과거(科擧)



선거(選舉)



천거(薦擧)

# 과거 형태의 선발방식을 중시하는 사회

**Theoria (관조적 활동)**

**episteme (학문적 지식)**

**이론가, 문장가**

**안목의 형성과 내면화,  
경전에 대한 주해와 해석**



과거(科擧)

# 선거 형태의 선발방식을 중시하는 사회

**Praxis (실천적 활동)**

**phronesis (실천적 지혜)**

**정치가, 경영자**

**참여에 의한 학습,  
토론, 발표, 공동체활동**



선거(選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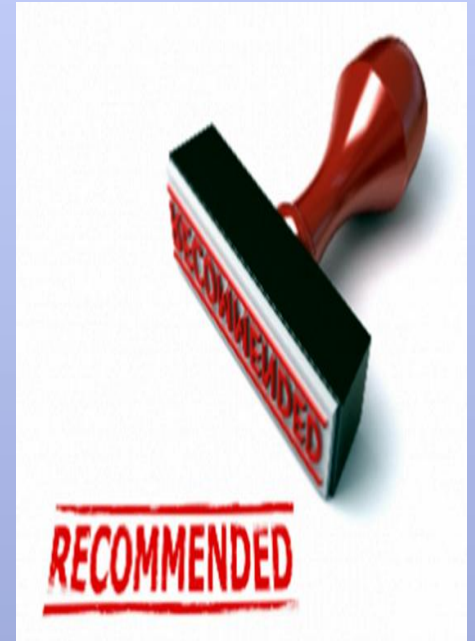
# 천거 형태의 선발방식을 중시하는 사회

Poesis (제작적 활동)

techne (기술)

기술자, 장인

행함에 의한 학습,  
도제식 훈련



천거(薦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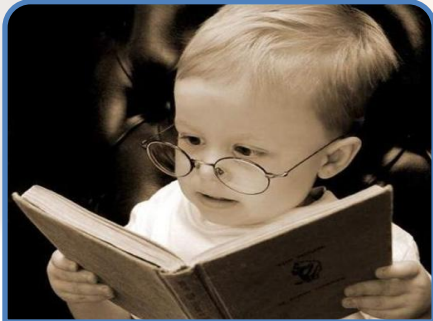


우리는  
선호하는 인재상,  
지식, 그리고  
학습방식



# 사족(蛇足)

# (1)이론공부의 난관



생소한 용어와  
많은 양의 암기

I



나무가 아닌  
숲을 보기

II



교사와  
같은 것 보기

III

# 이론적 이해(Theoretical understanding)란?

## 주목

- 주의집중
- 이해해야 할 대상과 사건, 현상들에 관심을 쏟는 능력

## 식별

-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있는 안목
- 머릿속으로 경계선을 설정할 수 있는 능력

## 규정

- 대상의 정체를 파악하는 안목
- 어떤 대상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간파하는 능력

## 조건적 이해

- 규정된 대상들을 서로 관련지음으로써 '체계'를 볼 줄 아는 안목
- 마음(이성)의 질서 안에서 대상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능력

## (2) 원격교육의 난관



혼자 공부하기

I



현존감의 부재

II

### (3) 성인학습의 난관



긴 휴지기

I



일, 가사, 학습의 병행

II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